

5·18 가해자는 호화 생활... 피해 소녀들은 해외서 힘겨운 생활

총 들고 무릎 꿇은 여학생들 목격한 가두방송 차명속씨 인터뷰

“이제 5·18이 40년이 됐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있고, 피해 소녀들은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처지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11월 26일 공개된 보안사령부 사진첩(13권·1769매·중복포함)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계엄군 앞에서 중·고교 여학생 4명이 무릎을 꿇은 채 칼빈소총을 머리 위로 든 사진이다. 보안사 사진첩(13권·54쪽 우측 하단)에 ‘검거된 폭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진은 5·18기간 중 신군부와 계엄군의 모든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왜곡 흔적이 가장 역력한 대표 사진 중 하나다.

그런데 5·18 40주년을 앞두고 “여중·고생을 무릎 꿇린 사진 속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첫 증언이 나왔다.

목격자는 다음 아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가두방송을 한 차명속씨(59·오월민주여성회 부회장)씨다.

차씨는 지난 30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27일 오후 상무관에서 여

5·18 가담도 안한 어린 소녀들 간첩 몰며 겁박하고 사진 찍어 트라우마에 미국·일본 이민 전화 왔지만 만남은 거부 지금까지도 고통에 시달려 하루빨리 왜곡 바로잡고 몇몇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학생들이 계엄군 앞에 무릎을 꿇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성인인 탓에 별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한 상태에서 여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군들이 5·18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겁박했다는 게 차씨의 설명이다.

현재 경북 안동에 사는 차씨는 “최근 공개된 보안사령부 사진첩 관련 뉴스를 보니 이 여학생들이 아직까지 폭도로 기록돼 있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 뒤 계엄군에게 붙잡힌 여학생들이 상무관에서 무릎을 꿇은 채 총을 머리 위로 들고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진 속 여학생 4명 중 2명은 당시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과 일본으로 이민가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씨가 사진 속 여학생들을 목격한 5월 27일은 계엄군의 도청진압작전이 있었던

날로, 이때 25명의 광주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체포, 연행된 시민들만 200여 명이 이른다.

차씨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차를 타고 돌며 군인들을 규탄하는 가두방송을 하다가 23일 붙잡혔다.

차씨는 “간첩으로 몰려 505보안대 지하실에 있다가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후계 상무관으로 끌려왔다”며 “최근 보안사 사진첩으로 공개된 여학생들을 당시 상무관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군들은 시민들이 상무관으로 연행될 때마다 남성과 여성을 나뉘고 여학생들은 따로 벽쪽에 몰아 넣었다”며 “그들은 총을 본적도 없는 여학생들에게 ‘총을 들고 서있어 보라’고 한 뒤 연출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계엄군들은 당시 차씨를 때리며 여학생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차씨는 “5월 5일 이후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그때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아픔,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 어린 여학생들의 충격은 오죽했겠느냐”며 40년 전 기억이 떠오른 듯 울먹였다.

지난해 5월에는 차씨에게 국제전화 한통이 걸려왔다고 한다. 미국에 살고 있던 사진 속 여학생 중 한명이 언론을 통해 5·18을 알리고 있던 차씨를 기억하고 연락한 것이다.

차씨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편

찮았는데, 마침 미국에 갈일이 있어 만나려 했지만 상대방이 ‘트라우마’ 탓에 직접 보기는 힘들다고 말해 만남이 무산됐다”면서 “지금도 그녀와 전화통화는 하지만,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씨에 따르면 당시 군인들에게 연행된 여학생들은 사진 속 4명을 포함해 50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가족에게조차 5·18 당시 겪었던 일을 숨긴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5·18당시 계엄군에게 갖은 고문을 받거나 연행돼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만 열안이 돼 있다. 이게 현실”이라며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다.

차씨는 “이젠 가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들은 몇몇히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면서 “당시 고통을 겪은 소녀들을 광주에서 다시 한번 만나 꼭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출범부터 맥빠진 5·18진상조사위

임명장 수여식 매끄럽지 못해... 내일 5·18모지 참배로 활동 시작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오는 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5월 관계자들 사이에선 일부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 등 5·18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첫 대응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1일 5·18진상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9명 전원은 3일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18진상조사위 위촉식을 열고 5·18진상조사위 9명의 위원 가

운데 상임위원 3명(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위원)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나머지 6명은 조사위원장이 다른 장소에서 임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5월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5·18진상조사위에 대한 정부의 첫 일정부터 맥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는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공식 출범행사는 없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월단체 민주열사 묘역 참배 1일 오전 5·18 3단체 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화장실 납품 비리’ 장흥군 공무원·업자 무더기 기소

공공 조달 계약과 탄판으로 시공한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로 장흥군청 공무원 A(43)씨를 구속기소하고 담당 팀장(53)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흥군에 계약과 다르게 화장실을 납품한 설계업체 실장 B(38)씨와 납품업체 대표 C(54)씨 등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앞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D(39)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올해 초 정남진 장흥

물류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업체에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4월 4억5700만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불품 주문으로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하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 내용과 달리 화장실 4동 중 2동이 영동화계도 사위장으로 시공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해맞이객 쓰러져 병원 이송

새해 해돋이를 보러 산에 오르던 6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오전 7시 40분경 화순군 동면 별산전망대 인근에서 천모(61)씨가 쓰러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천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성금 훔친 2인조 절도범 철창행

○...43초만에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간 6000여만원의 성금을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철창행.

○...1일 전주완산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5)씨와 B(34)씨는 지난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 ‘희망을 주는 나무’아래에 놔둔 익명의 기부금 6000여만원의 성금을 훔쳐 달아났는데, 범행 3일 전부터 주변을 떠돌던 이들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차량번호를 적어 놓은 뒤 경찰에 제보하는 바람에 도주 4시간만에 대전 인근에서 붙잡혔다는 것.

○...고교 선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튜브를 보니 얼굴 없는 천사가 이따금 오는 것 같더라’며 ‘사업 자금이 필요해 기다렸다가 돈을 훔쳤다’고 범행을 시인.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광주과기원 실험실서

황산 누출 3명 화상

광주과학기술원(GIST) 실험실에서 황산통이 넘어져 학생과 연구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1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30

일 오후 2시 55분께 광주시 북구 오로동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동 내 5층 실험실에서 황산 통이 넘어져 2l 가량의 황산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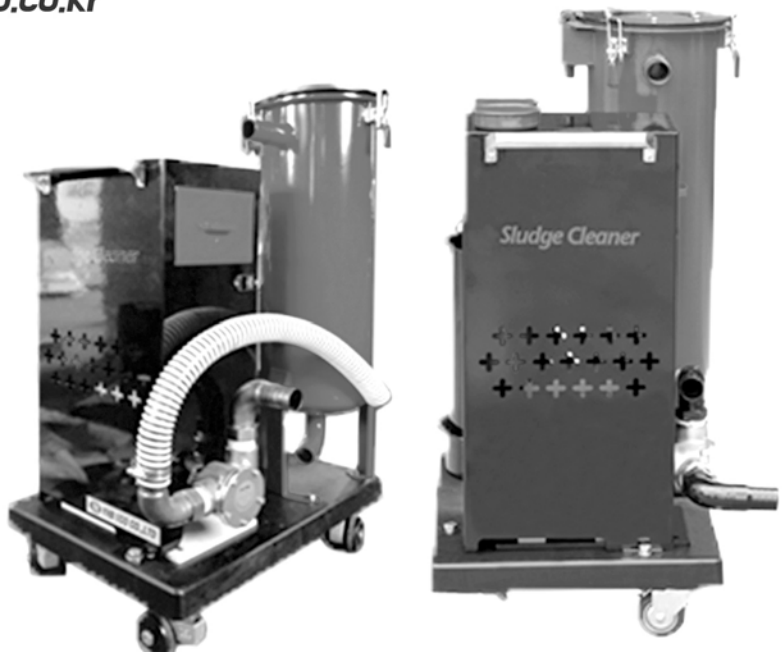
이 사고로 황산이 튀면서 A(31)씨 등 학생·연구원 3명이 손·발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 절삭유 교체 X
- ✂ 미세 칩 제거
- ✂ 연/절삭유 부패방지
- ✂ 슬러지 약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 TEL : (062) 953 - 2995
▶ H·P: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